



어휘의 힘

관계를 알고 뜻을 짐작해요

주제 세종 대왕과 훈민정음 인문/역사 연계

문제로 개념 확인하기

01 정답 ④

해설 '기쁘다'와 '즐겁다'는 마음이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비슷한 의미의 낱말로, 유의 관계입니다.

오답 분석 ①은 반의 관계, ②는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 ③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02 정답 장미, 나팔꽃

해설 '꽃'이라는 상의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종류인 하의어를 지문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 '파란 하늘'과 '돛자리'는 공원에 있는 대상이지만, '꽃'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3 정답 ②

해설 날씨가 깨끗하고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맑다'와 정반대되는 의미의 낱말은 '흐리다'입니다. (반의 관계)

오답 분석 ① '밝다'는 빛의 양과 관련이 있고, ③ '차다'는 온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맑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04 정답 ④

해설 '정반대'라는 낱말을 통해 '우울'이 앞의 '신난 기분'과 반대되는 감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③은 글의 배경 상황을 나타낼 뿐,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직접적인 단서가 아닙니다.



정답과 해설 가이드

05 정답 ①

해설 ①만 유의 관계이며, ②~⑤는 모두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반의 관계입니다.

오답 분석 '어렵다↔쉽다', '성공↔실패' 등 나머지 낱말 쌍은 모두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06 정답 생선 (또는 물고기)

해설 고등어, 갈치, 멸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낱말(상의어)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답 분석 '바다'는 이들이 사는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며, 이들을 포함하는 낱말은 아닙니다.

손으로 정리하기

정답

유의 관계는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들의 관계입니다.

반의 관계는 뜻이 서로 (**정반대**) 낱말들의 관계입니다.

상의어와 하의어는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참사 **팁**

아이가 '반대' 대신 '거꾸로', '포함' 대신 '들어가는'과 같이 쉬운 일상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지도할 때에는 "맞아! 국어에서는 이를 '반의 관계',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라고 한단다."와 같이 정확한 개념어를 함께 알려 주면 학업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로 **지문** 이해하기01 **정답** 쓰다

해설 3문단의 '기록하다'는 글을 써서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1문단의 '한자를 빌려 쓰다'와 문맥상 의미가 비슷한 유의 관계입니다.

오답 분석 '배우다'는 익히는 과정이고, '만들다'는 창조의 의미이므로 '기록'과 유의 관계가 아닙니다.

02 **정답** ③

해설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세종 대왕이 새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가 '불편함을 안타깝게 여겨'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⑤는 지문에 없는 내용이며, ④는 한자가 배우기 어렵다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됩니다.

03 **정답** ④

해설 2문단과 생각 넓히기에서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글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③, ⑤는 지문에 제시된 훈민정음의 특징(1443년 완성, 발음 기관 모방 등)입니다.

04 **모범 답안**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 또는 표현**)하기를 바랐던 세종 대왕님의 사랑 덕분이야.”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참사탑

지문에 제시된 핵심 어휘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문장의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다면 아
이의 창의적인 답변도 함께 격려해 주면 좋습니다.



정답과 해설 가이드

독해력 올리기

05 정답 ②

해설 2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훈민정음’의 뜻을 직접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③, ⑤는 이름의 뜻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긍정 표현입니다.

06 정답 ④

해설 ‘어렵다 - 쉽다’는 반의 관계입니다. ④ 역시 정반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입니다.

오답 분석 ①은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 ②, ③, ⑤는 유의 관계입니다.

07 정답 ③

해설 3문단에서 한글 덕분에 백성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게 된 변화를 ‘선물’에 비유했습니다.

오답 분석 ①, ⑤는 물질적인 가치에 집중한 것으로, 글쓰기가 강조하는 정신적·문화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손으로 정리하기

정답

1문단: 세종 대왕은 어려운 (**한자**)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을 위해 새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함.

2문단: 세종 대왕은 과학적인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또는 한글**)을 완성함.

3문단: 한글 덕분에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 또는 표현**)할 수 있게 됨.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첨삭 팁

3문단 요약에서 아이가 ‘기록’ 대신 ‘표현’, ‘소통’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지문에는 ‘기록’이라고 쓰였지만, 네가 쓴 ‘소통’이라는 말도 의미가 잘 어울리는구나!”와 같이 격려해 주세요.



학부모를 위한 격차 문해력 코칭 가이드

3문단 요약에서 아이가 ‘기록’ 대신 ‘표현’, ‘소통’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지문에는 ‘기록’이라고 쓰였지만, 네가 쓴 ‘소통’이라는 말도 의미가 잘 어울리는구나!”와 같이 격려해 주세요.

◇ ‘생각 주머니’ 질문법 (논리 유도)

정답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교 질문: “옛날 백성들은 왜 한자는 어려워하고, 한글은 ‘선물’이라고 여겼을까?”

가이드

아이가 ‘어렵다’와 ‘쉽다’처럼 반의 관계를 활용해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분류 질문: “한글 말고 우리가 아는 또 다른 글자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이드

‘글자’라는 큰 범주 안에 ‘한글’, ‘한자’, ‘알파벳’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 2022 개정 교육과정 포인트: 문맥 짐작하기

이번 회차의 핵심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문맥 속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단어의 의미를 물어볼 때 바로 알려 주기보다, “앞뒤 문장에 비슷한 의미나 반대되는 말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단서를 찾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스스로 점검하기 피드백

아이가 ‘아니오’에 표시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의 [개념 구조도]를 다시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해 주세요. 초등 3~4학년 시기에는 눈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휘의 힘

디지털 시대, 한글의 놀라운 힘

인문/역사 - IT 융합

지문 깊이 읽기

지문 분석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문장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문장이 이를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면 글의 흐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글을 쓸 때도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1문단) 아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이 있어도 이를 적을 **글자(상의어)**가 없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우기 무척 **어렵고(반의 관계)** 복잡한 중국의 **‘한자’(하의어)**를 빌려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농사법을 담은 책을 읽지 못해 수확을 늘리기도 힘들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청에 글을 써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제4대 왕 세종 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인 새 글자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문단(문제 제시): ‘글자(상의어)’와 ‘한자(하의어)’의 관계를 통해 글자가 없던 시절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어렵다’라는 키워드는 한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2문단) 1443년에 탄생한 **훈민정음(하의어)**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과 하늘(·), 땅(ㅡ), 인간(|)의 모양을 본떠 만든 아주 체계적인 글자입니다. 글자의 원리가 명확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다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웠습니다.(반의 관계)** 이는 단순한 글자의 탄생을 넘어,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문단(해결책): 1문단의 ‘어렵다’와 반의 관계인 ‘쉽다’를 배치하여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강조합니다.

(3문단)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 한글의 가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소리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적을(유의 관계)** 수 있는 ‘음소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천지인’ 방식은 하

늘, 땅, 인간을 뜻하는 세 개의 버튼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구조 덕분에 한글은 다른 어떤 나라의 글자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3문단(현대적 확장): ‘적다’와 ‘입력하다’의 맥락을 연결하여 ‘기록(유의 관계)’의 의미를 디지털 환경으로 전이시킵니다.

(4문단) 최근 인공 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칙이 일정하고 소리 체계가 정교한 한글은 인공 지능이 학습하기에 매우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음성 인식 기술이나 문자를 읽어 주는 기술에서 한글이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는 이유도 바로 한글이 가진 **체계적인(유의 관계)** 음절 구조 덕분입니다.

4문단(미래 가치):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인공 지능의 패턴 인식과 연결하여 상의어(글자)-하의어(디지털 문자/AI 학습용 문자)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5문단)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만든 **한글(하의어)**은 이제 우리만의 것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종 대왕의 백성 사랑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글자를 아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일 때, 한글은 미래의 인공 지능 시대에도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5문단(결론): ‘상의어(글자)’의 마지막 예시인 ‘한글’을 통해 백성 사랑의 정신이 현대의 인류애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음을 요약합니다.



학부모 코칭



아이가 지문을 읽을 때 “한자와 한글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했지?” 또는 “한글 말고 우리가 아는 또 다른 글자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해 주세요.

아이가 반의 관계와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를 떠올리며 답하는 과정은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 질문하기

“옛날 백성들은 왜 한자는 어려워하고, 한글은 선물이라고 여겼을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어렵다’와 ‘쉽다’처럼 정반대되는 뜻을 활용해 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 좋습니다.



어휘 주머니 놀이

지문을 읽기 전에 ‘글자’라는 큰 범주 안에 ‘한자’, ‘한글’, ‘알파벳’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를 통해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념 격차 다지기

01 정답 한자, 훈민정음(또는 한글)

해설 ‘글자’는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상의어이고, 구체적인 종류인 ‘한자’와 ‘한글’은 하의어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백성’과 ‘세종 대왕’은 글자의 종류가 아니므로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02 정답 ②

해설 지문의 ‘어렵다 - 쉽다’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반의 관계입니다. 보기의 ‘복잡하다 - 단순하다’ 역시 서로 반대되는 의미이므로 같은 관계입니다.

오답 분석 ①은 유의 관계(예 기쁨 - 즐거움), ③은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예 과일 - 사과), ④는 동의어의 관계(예 눈 - 하늘의 눈/사람의 눈)입니다.

03 정답 기록하다(또는 쓰다)

해설 ‘적다’는 글이나 그림을 써서 남기는 행위이며, 지문에 제시된 ‘기록하다’와 의미가 비슷한 유의 관계입니다.

오답 분석 ‘읽다’는 글을 소리 내어 말로 나타내는 행위이며, ‘만들다’는 새롭게 창조해 내는 의미이므로 유의 관계가 아닙니다.

독해력 격차 올리기

04 정답 ③

해설 3문단에 따르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가 과학적이어서 입력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천지인’ 방식은 단 3개의 버튼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한글은 한자와 구조가 다르며(①), 그림 문자가 아닙니다(②).

05 정답 ③

해설 4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한글을 학습하기 유리한 이유로 ‘규칙이 일정하고 소리 체계가 정교한 구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 지능의 데이터 패턴 인식 방식과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감정이 담겨 있어서(②)라는 내용은 인공 지능의 기술적 발전 근거로는 부족하며 지문에도 없습니다.

06 정답 ③

해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쓰이는 세종 대왕의 정신을 기억하며 “한글을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핵심 주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④, ⑤는 글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이해했거나 핵심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손으로 정리하기

07 모범 답안

과거에는 글자가 없어 삶이 매우 불편했지만, 오늘날에는 한글 덕분에 디지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아이가 ‘불편’과 ‘효율’이라는 핵심 어휘를 문맥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칭찬해 주세요.

08 정답 하늘(·), 땅(—), 인간(|)

해설 2문단에 괄호로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 적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를 통해 한글의 제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09 모범 답안

한글은 소리 체계가 체계적이고 정교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매우 유리합니다.

해설 아이가 ‘체계적’이라는 표현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좋은 근거와 연결하여 이해했는지 살펴봐 주세요.



생각 격차 벌리기

아이들은 글을 쓸 때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생각을 단순하게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 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다. 한글은 좋다. 그래서 한글을 써야 한다.”와 같이 짧은 문장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유의 관계는 다양한 낱말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반의 관계는 생각을 분명하게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는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익히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논술 과정

1단계: 배경지식 찾기

모범 답안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글자 하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친구에게 급한 일을 전해야 할 때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활동 가이드

아이가 ‘답답함’, ‘오래 걸림’, ‘어려움’과 같은 표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자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한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라고 질문해 주세요.

2단계: 글감 구성하기

모범 답안

나의 주장: 나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1: 천지인 원리 덕분에 적은 버튼으로도 아주 빠르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유 2: 인공 지능 기술에서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활동 가이드

지문에 제시된 현대적 사례(천지인, 인공 지능)를 글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3단계: 문단 구성하기

모범 답안

서론: 배우기 어렵고 복잡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써야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청에 하소연하지 못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론 1: 스마트폰에서 '천지인' 방식을 사용하면 하늘, 땅, 사람을 뜻하는 세 개의 버튼만으로 모든 모음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본론 2: 한글은 소리 체계가 정교하고 규칙이 일정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공 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학습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결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글자를 소중히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 서론 지도 포인트

아이가 한자와 훈민정음을 비교하며 '어렵다-쉽다'와 같은 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글을 쓰지 못해 내 생각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질문하며 당시 백성들의 상황에 공감하도록 도와주세요.

✍️ 본론 1 지도 포인트

3문단의 내용을 활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 한글이 편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좋습니다.

✍️ 본론 2 지도 포인트

4문단의 '체계적'이라는 핵심 어휘를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한글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 결론 지도 포인트

글의 마지막에서는 한글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글을 소중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글 완성하기

모범 답안

세종 대왕은 글자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자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천지인 원리를 활용해 글자를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은 오늘날에도 소중한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며 세종 대왕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작성을 돕는 코멘트 (학부모 지도용)

글의 처음과 끝이 하나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봐 주세요. 특히 ‘천지인’과 ‘인공 지능’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수정 지도 시 주의 사항

아이가 문장을 모두 완성한 뒤, 필요한 경우 어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체계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뜻이 더 분명해질 것 같아.”와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휘를 함께 고르는 과정이 글쓰기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휘 활용하기

어휘 훈련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아래 활동을 통해 어휘를 다양한 맥락에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1 불편 不(아니 불), 便(편할 편)

모범 답안

안경을 집에 두고 와서 책을 읽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지도 포인트 및 활동 가이드

상황-결과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02 기록 記(기록할 기), 錄(기록할 록)

모범 답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지도 포인트 및 활동 가이드

목적성

'쓰다'와 '나중에 보려고 남기다(기록)'라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03 과학적 科(과목 과), 學(배울 학)

모범 답안

정수기 안에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도 포인트 및 활동 가이드

이치와 원리

주변 기계나 도구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과 해설 가이드

04 표현 表(겉 표), 現(나타날 현)

모범 답안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마워.”라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도 포인트 및 활동 가이드

내면의 외면화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이 말, 글, 몸짓 등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알려 주세요.

05 인정 認(알 인), 定(정할 정)

모범 답안

선생님은 우리 반에서 민수가 달리기를 가장 잘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지도 포인트 및 활동 가이드

사실의 수용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활용하도록 도와주세요.



1 한자 의미로 낱말 짐작하기

초등 3~4학년 시기 어휘에는 한자어 비중이 높습니다. 한자를 외우기보다 뜻을 활용해 낱말의 의미를 짐작하도록 도와주세요.

지도 방법

“불편(不便)에서 ‘불’은 ‘아니다’, ‘편’은 ‘편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불편’은 어떤 뜻일까?”와 같이 질문해 보세요.

기대 효과

모르는 낱말을 만났을 때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뜻을 짐작하는 연습이 됩니다.

2 지문과 실생활 연결하기

지문 속 단어를 아이의 경험과 연결하면 어휘를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지도 방법

“지문에서는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불편했다고 했지? 너는 오늘 어떤 점이 불편했니?”와 같이 질문해 보세요.

기대 효과

배운 어휘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면서 단어의 쓰임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문장 만들기 지도하기

아이가 문장을 만들었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①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

예 “어제는 매우 불편했다.” → 무엇이 불편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안내

지도 예시

“무엇이 불편했는지 이유를 함께 써 볼까?”

② 단어 쓰임 이해하기

예 “나는 과학적인 것을 좋아해.” →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

지도 예시

“‘과학적’은 보통 ‘과학적인 원리’처럼 다른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해.”



③ 자신의 경험 활용하기

지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도와주세요.

4 어휘 관계 확장하기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함께 떠올리면 어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지도 방법

“기록’과 비슷한 말은 무엇이 있을까?”, “불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와 같이 질문해 보세요.



코치 한마디

아이가 만든 문장이 다소 서툴더라도 새 단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했다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맞춤법이나 문장 표현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모두 쓴 뒤 차근차근 다듬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어휘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경험이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적사